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우피족(Woopie)과 푸피족(Poopie)
- 부유한 노인과 가난한 노인의 소득 격차 확대

Executive Summary

□ 우피족(Woopie)과 푸피족(Poopie)

- 부유한 노인과 가난한 노인의 소득 격차 확대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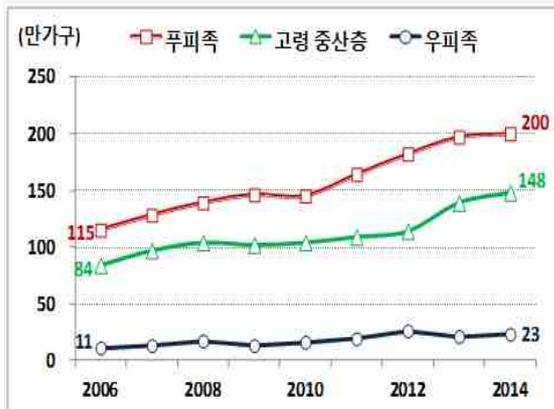
우피족(Woopie : Well-off older people)이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으로서, 중위 소득 150% 이상, 65세 이상 가구주'이며, 한편 푸피족(Poopie : Poorly-off older people)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노인으로서, 중위소득 50%미만, 65세 이상 가구주'로 정의하였다.

■ 우피족과 푸피족의 경제적 특징

위와 같은 정의에 따라 통계청의 '2006~2014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여 푸피족과 우피족을 추정하여 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특징이 있다.

(인구통계적 특징) 첫째, 2014년 현재 푸피족은 200만 가구로서, 전체 고령층(371만 가구)의 54.0%(약 10명 중 5명)에 달하는 반면, 우피족은 6.2%인 23만 가구에 불과하다. 둘째,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가구, 독거노인가구, 여성가구주일수록 푸피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4년 현재 푸피족은 전체 노인가구 중 63.4%, 독거노인가구의 71.9%, 여성가구주의 69.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우피족은 노인가구의 3.8%, 독거노인가구의 2.6%, 여성가구주의 3.3%로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 푸피족과 우피족의 추계 >



< 푸피족과 우피족의 인구통계적 특징 >



(소득·지출의 특징) 셋째, 푸피족과 우피족의 소득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2006~2014년 간 푸피족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51만원에서 63만원으로 연평균 2.7% 증가했고, 동기간 우피족은 448만원에서 580만원으로 연평균 3.3% 증가했다. 이에 따라 푸피족과 우피족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2006년 약 8.8배에서 2014년 약 9.2배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넷째, 푸피족은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소득이 감소했다. 푸피족의 월평균 시장소득(경상소득-공적이전소득)은 2006년 39만원에서 2014년 33만원으로(6만원 감소) 연평균 -2.1% 감소한 반면, 우피족은 동기간 379만원에서 442만원으로(63만원 증가) 연평균 1.9% 증가했다.

이에 따라 푸피족과 우피족의 월평균 시장소득은 2006년 약 9.7배에서 2014년 13.4배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푸피족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2010년 20만원에서 2014년 30만원으로 연평균 10.7% 증가했고, 경상소득 대비 비중도 동기간 37.0%에서 47.6%로 10.6%p 증가하는 등 푸피족의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다섯째, 푸피족과 우피족의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도 확대되었다.** 고용 불안정 등의 이유로 푸피족과 우피족의 월평균 근로소득 격차는 2006년 약 26.9배에서 2014년 약 27.2배로 확대되었다. 또한 월평균 사업소득 격차도 2006년 약 13.8배에서 2014년 약 18.9배로 확대되었다. **여섯째, 푸피족은 필수재 소비 비중이 높은 반면, 우피족은 선택재 비중이 높다.** 푸피족의 전체 소비 지출 가운데 필수재 비중이 2006년 61.1%에서 2014년 64.7%로 확대되는 등, 먹고 사는 비용만 하더라도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우피족은 높은 소득 수준 등의 이유로 필수재 비중이 약 40% 이하인 반면, 선택재 비중은 약 60%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곱째, 푸피족의 가계수지는 악화된 반면, 푸피족의 가계수지는 호전되었다.** 푸피족의 가계수지 적자규모는 2006년 16만원에서 2014년 19만원으로 증가했고, 필수재 소비만 하더라도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우피족의 가계수지 흑자규모는 2006년 38만원에서 2014년 115만원으로 증가했다.

< 푸피족과 우피족의 경상소득 > < 푸피족과 우피족의 필수재, 선택재 소비 비중 >



■ 시사점

푸피족의 증가는 정부의 재정부담 등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푸피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푸피족의 소득여건 개선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현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푸피족이 많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 고령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및 경영컨설팅 강화도 필요하다. **넷째,**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 노력도 필요하다.

1. 개요

○ (연구배경) 최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층 내 소득계층별 현황 분석에 대한 필요성 대두

- 고령화로 고령층이 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 주도 세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고령층 내 소득여유계층과 소득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할 필요

- 2014년 현재 고령가구는 전체 가구의 20.1%에 달하며, 향후 지속 증가하여 2035년에는 40.5%에 달할 전망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과 각종 복지비용 증가 등은 고령층의 소득계층별 양극화 현상을 심화할 가능성이 존재
- 특히 소득취약계층의 증가는 정부의 재정부담 등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고령층 내 소득여유계층 확대 노력이 필요

○ (선행연구) 우피족(Woopie : Well-off older people)이란 '경제적으로 여유를 즐기며 사는 풍요로운 노인'을 의미

- 우피족이란 '경제적으로 여유를 즐기며 사는 풍요로운 노인'으로서 2003년 이후에 생긴 신조어임

- 우피족은 부유 노년층이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겨냥해 광고업계에서 2003년 이후 붙인 명칭임
- 이들은 자녀 양육부담도 거의 없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저축액도 많아 소비에도 인색하지 않은 편임
- 선행연구에서는 나이는 50대 이상이고, 부모의 재산을 상속했거나 자신의 돈으로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남은여생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노인임

- 푸피족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노인'에 대한 정의로서, 현대경제연구원(HRI)이 새롭게 정의

-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빈곤 문제 확대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노인'에 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를 모색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피족과 상반된 개념으로 푸피족(Poopie : Poorly-off older people)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함

- (정의) 본 연구에서 우피족(Woopie : Well-off older people)이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상, 65세 이상 가구주'이며, 한편 푸피족(Poopie : Poorly-off older people)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노인으로서, 중위소득 50%미만, 65세 이상 가구주'를 뜻함
- 본 연구의 우피족(Woopie)은 가구주가 65세 이상, 균등화 가처분소득 $(\frac{\text{가처분소득}}{\sqrt{\text{가구원수}}})$ 이 중위소득 150% 이상의 가구주로 새롭게 정의한 용어
 - 현대경제연구원은 우피족을 OECD, 통계청 기준에 따라 가구주 나이는 65세 이상으로,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이 중위값의 150% 이상으로 정의
- 한편 푸피족(Poopie)은 가구주가 65세 이상,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미만의 저소득 가구주로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정의한 용어
 - 현대경제연구원은 푸피족을 OECD, 통계청 기준에 따라 가구주 나이는 65세 이상으로,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이 중위값의 50% 미만으로 정의
- (분석방법) 통계청의 '2006~2014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여 우피족과 푸피족을 추정하여 경제적 특성을 분석
 - 인구통계 : 가구주별 성별, 학력별, 노인가구, 1인가구 현황
 - 소득-지출 : 경상소득을 비롯한 소득 수준 및 구조 분석, 소비 수준 및 필수재·선택재 등 지출 구조 분석, 가계수지 현황 등

< 우피족과 푸피족의 정의 >

구분	우피족 (Woopie : Well-off older people)	푸피족 (Poopie : Poorly-off older people)
정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령층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고령층
가구주 연령	만 65세 이상	최동
소득 기준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상의 가구주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의 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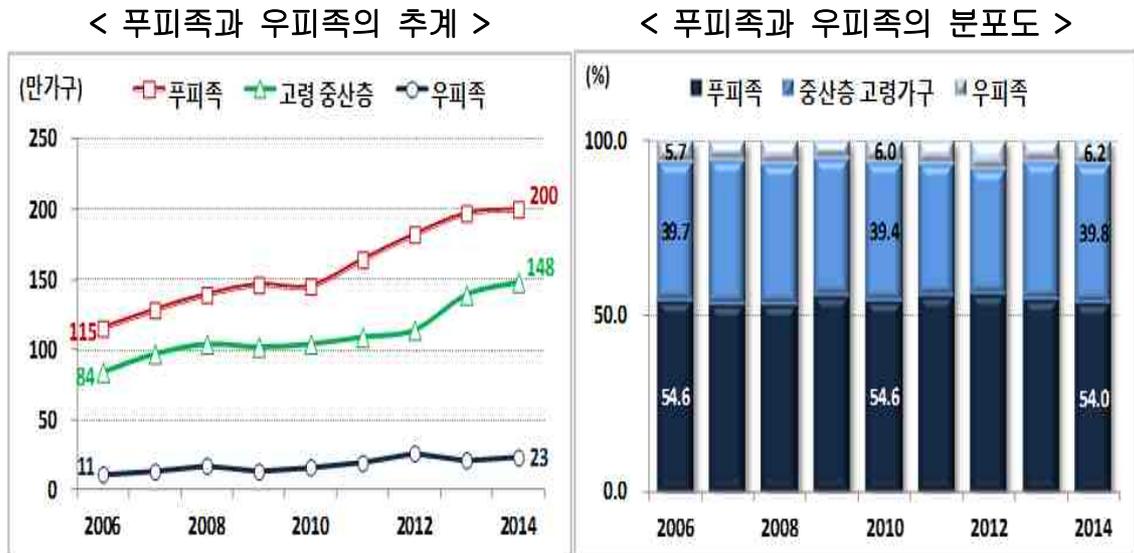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정리.

2. 우피족과 푸피족의 경제적 특징

1) 인구통계적 특징

○ 푸피족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우피족은 낮은 수준이 지속

- 2014년 현재 고령층 가구 371만 가구 중 푸피족은 200만 가구로 54.0%에 달하는 반면, 우피족은 23만 가구로 6.2%에 불과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 : 중산층 고령층은 푸피족과 우피족에 속하지 않는 가구로, 중위소득 50~150%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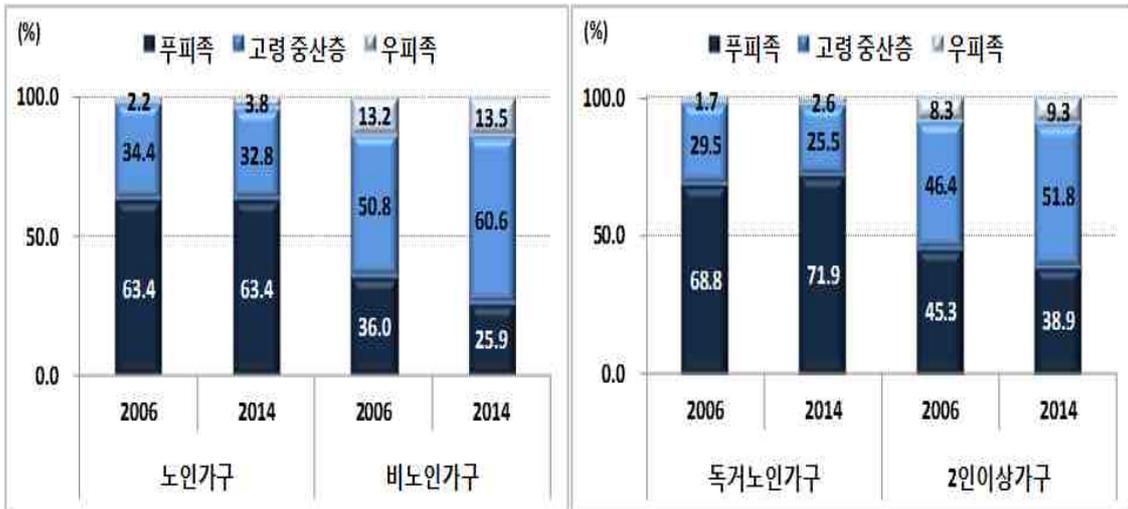
○ 노인가구1), 특히 독거노인가구2)일수록 푸피족의 비중이 매우 높음

- 2014년 현재 전체 278만 노인가구 중 푸피족은 176만 가구로 63.4%에 달하는 반면, 우피족은 11만 가구로 3.8%에 불과
- 특히 전체 170만 독거노인가구 가운데 푸피족은 122만 가구로 71.9%에 달하는 반면, 우피족은 4만 가구로 2.6% 수준에 불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에 의하면 노인가구란, 18세 이상 65세 미만 가구원을 포함하지 않고,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가구를 의미함.

2)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를 의미함.

< 푸피족과 우피족의 노인가구 변화 > < 푸피족과 우피족의 독거노인가구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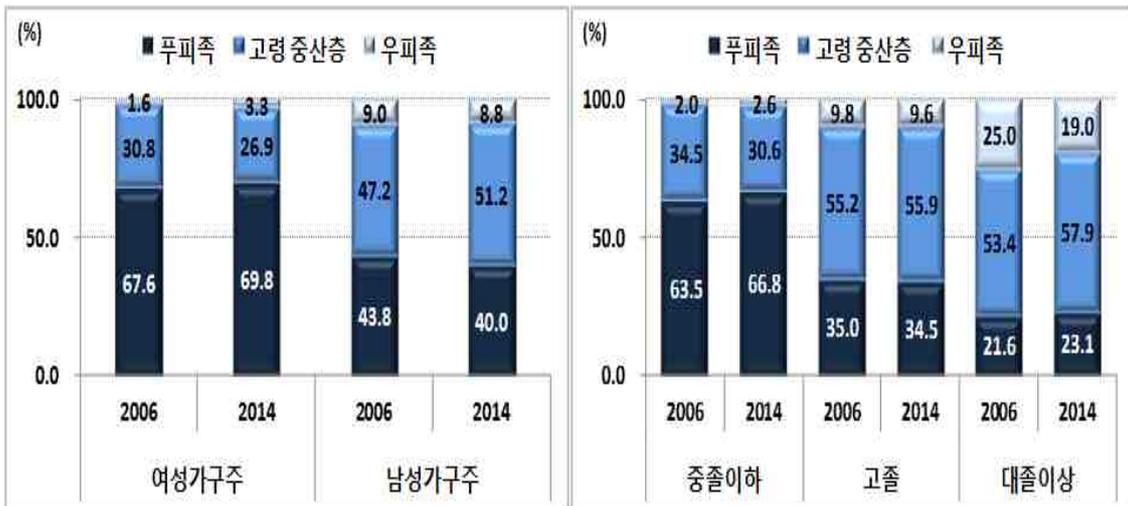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 푸피족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가구주 비중이,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비중이 매우 높음

- 2014년 현재 여성이 가구주인 174만 가구 중 푸피족의 여성가구주 비중이 69.8%(122만 가구)에 달하는 반면, 우피족은 6만 가구로 3.3%에 불과
- 학력별로는 전체 중졸이하 가구주 241만 가구 중 푸피족은 161만 가구로 66.8%에 달하는 반면, 우피족은 6만 가구로 2.6%에 불과함

< 푸피족과 우피족의 가구주 성별 변화 > < 푸피족과 우피족의 가구주 학력 변화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2) 소득-지출의 특징

○ 푸피족과 우피족의 소득 격차 확대

- 푸피족과 우피족 모두 경상소득(명목기준)은 증가했지만 소득 격차가 확대
 - 2006~2014년 간 푸피족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51만원에서 63만원으로 연평균 2.7% 증가했고, 동기간 우피족은 448만원에서 580만원으로 연평균 3.3% 증가
 - 이에 따라 푸피족과 우피족의 월평균 경상소득 격차는 2006년 약 8.8배에서 2014년 약 9.2배로 확대

○ 푸피족은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소득 감소

- 푸피족의 시장소득(경상소득-공적이전소득)은 오히려 6만원 감소
 - 푸피족의 월평균 시장소득은 2006년 39만원에서 2014년 33만원으로 연평균 -2.1% 감소한 반면, 우피족은 동기간 379만원에서 442만원으로 연평균 1.9% 증가
 - 이에 따라 푸피족과 우피족의 월평균 시장소득 격차는 2006년 약 9.7배에서 2014년 13.4배로 확대
 - 특히 푸피족의 경우 월평균 시장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사실상 공적이전소득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

< 푸피족과 우피족의 경상소득 >



< 푸피족과 우피족의 시장소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구분	주요내용
경상소득	- 가구의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	-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
사업소득	- 자영사업의 대가로 얻은 소득(임대소득 포함)
재산소득	- 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자, 배당,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이전소득	- 정부, 타가구,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으로 구성
사적이전소득	- 가구간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으로 구성
시장소득	- 시장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경상소득-공적이전소득)

- 푸피족의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크게 확대

- 푸피족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2010년 20만원에서 2014년 30만원으로 연평균 10.7% 증가했고, 경상소득 대비 비중도 동기간 37.0%에서 47.6%로 10.6%p 증가
- 특히 공적이전소득 내 기초노령연금이 2010년 7만원에서 2014년 14만원으로 2배 증가했고, 경상소득 대비 비중도 동기간 13.0%에서 22.2%로 9.2%p 증가
- 한편 우피족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2010년 112만원에서 2014년 138만원으로 연평균 5.4% 증가했고, 경상소득 대비 비중은 동기간 20.9%에서 23.8%로 소폭 증가

○ 푸피족의 일자리는 불안정성이 큰 반면, 우피족은 비교적 안정

- 푸피족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우피족은 상용직 확대 등 소득 여건 개선에 긍정적

- 푸피족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2010년 68.2%에서 2014년 72.0%로 증가 추세인 반면, 자영업자(28.2%→24.7%)와 상용직(3.7%→3.2%) 비중은 모두 감소
- 우피족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2010년 38.0%에서 2014년 22.8%로 줄어들면서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 비중이 증가

< 푸피족과 우피족의 공적이전소득 변화 > < 푸피족과 우피족의 종사상 지위 변화 >

(만원, %)

구분	푸피족		우피족	
	2010	2014	2010	2014
공적이전소득	20 (37.0)	30 (47.6)	112 (20.9)	138 (23.8)
공적연금	5 (9.3)	9 (14.3)	94 (17.5)	123 (21.2)
기초노령연금	7 (13.0)	14 (22.2)	2 (0.4)	3 (0.5)
기타(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8 (14.8)	7 (11.1)	16 (3.0)	12 (2.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 : 1) 2008년부터 실시된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2010년과 2014년을 비교 분석.

2) 공적이전소득 비중 변화는 경상소득 대비이며, ()로 표기함.

3) 종사상 지위 변화는 가계동향조사 방법 변경으로 2010년부터 분석.

○ 푸피족과 우피족의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도 확대

- 일자리 문제로 푸피족과 우피족의 근로소득 격차 확대

- 2006~2014년 간 푸피족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했고, 동기간 우피족은 215만원에서 245만원으로 연평균 1.6% 증가
- 이에 따라 푸피족과 우피족의 월평균 근로소득 격차는 2006년 약 26.9배에서 2014년 약 27.2배로 확대
- 특히 푸피족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전 기간에 걸쳐 10만원 이하 수준임
- 푸피족의 일자리는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반면, 우피족은 상용직 비중이 비교적 높아 근로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한편 자영업으로 인한 사업소득도 격차 확대

- 2006~2014년 간 푸피족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8만원에서 7만원으로 연평균 -1.7% 감소한 반면, 동기간 우피족은 110만원에서 132만원으로 연평균 2.3% 증가
- 이에 따라 푸피족과 우피족의 월평균 사업소득 격차는 2006년 약 13.8배에서 2014년 약 18.9배로 확대
- 특히 푸피족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월평균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전 기간에 걸쳐 10만원 이하 수준에 불과
- 푸피족과 우피족 모두 자영업자 비중이 축소됐으나, 우피족은 소득이 증가한 반면 푸피족은 감소하여 푸피족의 자영업자가 더욱 취약

< 푸피족과 우피족의 근로소득 >



< 푸피족과 우피족의 사업소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 : 월평균 소득 기준임.

○ 푸피족은 필수재 소비 비중이 높은 반면, 우피족은 선택재 비중이 높음³⁾

- 푸피족은 먹고 사는 비용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우피족은 높은 소득 수준으로 선택재 소비 비중이 높음
 - 푸피족의 전체 소비 지출 가운데 필수재 비중이 2006년 61.1%에서 2014년 64.7%로 확대되는 등, 먹고 사는 비용만 하더라도 매우 큰 부담
 - 한편 우피족은 높은 소득 수준 등의 이유로 필수재 비중이 약 40% 이하인 반면, 선택재 비중은 약 60%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 푸피족의 가계수지는 악화된 반면, 우피족의 가계수지는 호전

- 푸피족의 가계 흑자액⁴⁾은 감소한 반면, 우피족은 크게 증가
 - 푸피족의 가계수지 적자규모는 2006년 16만원에서 2014년 19만원으로 증가했고, 필수재 소비만 하더라도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사용
 - 반면 우피족의 가계수지 흑자규모는 2006년 38만원에서 2014년 115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소비여력이 충분함

< 푸피족과 우피족의 필수재, 선택재 소비 비중 >



< 푸피족과 우피족의 소비여력 변화 >

구분	푸피족		우피족	
	2006	2014	2006	2014
소비지출(A)	54	68	228	249
필수재	33	44	82	95
선택재	21	24	146	154
가처분소득(B)	38	49	266	364
흑자액(B-A)	-16	-19	38	11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 :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공적 비소비지출)은 가구원수를 고려한 수치임.

3) 필수재(Necessities)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재화로 소득 탄력성이 1이하이며, 선택재(Luxurious)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재화로 소득 탄력성이 1이상임. 본 연구에서 필수재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 및 수도광열, 보건이며 선택재는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임.

4) 흑자액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남은 금액은 자산의 구입이나 저축에 이용.

5) 종합평가

○ (비교 결과) 푸피족과 우피족의 소득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고, 푸피족은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소득이 감소

- 푸피족은 우피족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가구, 독거노인가구, 여성가구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
- 다음으로, 소득에 있어 푸피족과 우피족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푸피족의 경우 월평균 시장소득이 오히려 감소
- 또한, 푸피족은 필수재 소비만 하더라도 가처분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비여력이 전무한 반면, 우피족은 가계 흑자액 증가로 소비여력이 충분

< 푸피족과 우피족의 특징 비교 >

구분		푸피족(2006년 → 2014년)	우피족(2006년 → 2014년)
가구수		- 115만 가구 → 200만 가구 · 2014년 전체 가구의 54.0%	- 11만 가구 → 23만 가구 · 2014년 전체 가구의 6.2%
인구통계	노인가구	- 63.4% → 63.4% · 높은 수준 유지	- 2.2% → 3.8% · 낮은 수준 유지
	독거노인가구	- 68.8% → 71.9% · 높은 수준 유지	- 1.8% → 2.6% · 낮은 수준 유지
	여성가구	- 67.6% → 69.8% · 높은 수준 유지	- 1.7% → 3.4% · 낮은 수준 유지
소득지출	경상소득	- 51만원 → 63만원 · 연평균 2.7% 증가	- 448만원 → 580만원 · 연평균 3.3% 증가
	시장소득	- 39만원 → 33만원 · 연평균 -2.1% 감소	- 379만원 → 442만원 · 연평균 1.9% 증가
	필수재 및 선택재	- 61.1% → 64.7% · 필수재 비중 확대	- 64.0% → 61.8% · 선택재 비중 높음
	가계수지	- -16만원 → -19만원 · 적자 확대	- 38만원 → 115만원 · 흑자 확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평가.

3. 시사점

- 푸피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

첫째, 푸피족의 소득여건 개선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실시

- 우리나라는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이 적고, 노후준비도 부족한 편이라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불가피하게 노동시장에 진출
 -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고령층 노동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일자리 교육훈련 개발 및 네트워크를 강화
- 근로능력이 있는 푸피족에게는 퇴직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가교 일자리(bridge job)를 마련
 - 푸피족과 같은 소득취약계층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public laboring project)도 확대할 필요
 - 다른 연령층에 비해 푸피족의 능력이 크게 발휘될 수 있는 학교보안관, 급식 지원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
- 특히 푸피족을 위해 근로장려금제도(EITC) 지급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지속적인 근로 환경을 보장

둘째, 현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푸피족이 많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모색

-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및 독거노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
 - 푸피족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가구주, 노인가구, 1인가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표적 집단으로 설정할 필요
- 특히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복지 확대 차원에서 정부차원의 노인복지기본법 제정 등을 적극 모색

- 한편 소득재분배 정책 확대로 일할 능력을 상실한 고령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
 -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푸피족을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공적이전소득이 제공되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확대

셋째, 저소득 고령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및 경영컨설팅 강화 모색

- 저소득 고령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지원과 더불어 이들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강화
 - 푸피족과 우피족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2006년 약 13.8배에서 2014년 약 18.9배로 격차가 확대
 - 따라서 푸피족에 대한 운영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영컨설팅 강화를 통해 이들의 자생력을 키워줄 필요

넷째,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 노력도 필요

- 고령층 진입 이전부터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강화하여 노후불안을 대비
 -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양한 공적연금 강화 노력을 모색
-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불안 해소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소득계층에 맞는 맞춤형 사적연금 활성화 노력을 모색
 - 2028년까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더욱 중요시 될 전망
 - 푸피족의 경우 고령층 진입 이전부터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독일식 ‘리스트 연금’ 제도 도입을 모색
 - 한편 우피족도 사적 연금 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매월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사적 연금 가입 확대가 필요

이용화 선임연구원 (2072-6222, yhlee@hri.co.kr)
이준협 동향분석실장 (2072-6219, sododuk1@hri.co.kr)

【 첨부 】 푸피족과 우피족의 소득-지출 추이

< 푸피족 월평균 소득 추이 (명목기준) >

(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상소득	51	52	54	51	54	56	57	60	63
근로소득	8	8	8	9	10	9	9	10	9
사업소득	8	8	6	7	7	7	7	8	7
재산소득	1	1	1	1	1	1	1	1	1
이전소득	34	35	39	35	36	39	40	41	46
공적	12	13	16	18	20	21	22	24	30
사적	22	22	23	16	16	18	18	17	16
시장소득	39	39	38	33	34	35	35	36	33
가처분소득	38	38	39	38	40	42	44	45	49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 : 1) 시장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임.

2)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공적 비소비지출)은 가구원수를 고려.

< 푸피족 월평균 지출 추이 (명목기준) >

(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소비지출	54	59	62	59	66	70	69	69	68
식료품	14	15	16	16	17	19	19	19	18
주류담배	1	1	1	1	1	1	1	1	1
의류신발	2	2	2	2	2	2	2	2	2
주거	11	12	11	12	13	15	15	15	15
가정용품	2	2	3	2	3	3	3	3	3
보건	8	10	10	11	13	11	11	12	11
교통	3	4	4	3	4	4	4	4	4
통신	3	3	3	3	3	3	3	3	2
오락문화	2	2	2	2	2	2	3	3	3
교육	1	1	1	1	0	1	0	0	0
음식숙박	4	4	4	3	3	4	4	4	4
기타	3	4	3	4	4	5	4	4	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 우피족 월평균 소득 추이 (명목기준) >

(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상소득	448	519	493	466	536	607	630	616	580
근로소득	215	224	228	187	243	298	290	274	245
사업소득	110	140	129	144	148	163	172	126	132
재산소득	18	23	13	7	12	16	29	46	14
이전소득	105	132	123	130	133	131	139	170	189
공적	69	91	86	106	112	106	116	134	138
사적	36	41	37	24	21	25	23	36	52
시장소득	379	428	407	360	424	501	514	482	442
가처분소득	266	299	288	281	300	332	362	377	364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 : 1) 시장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임.

2)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공적 비소비지출)은 가구원수를 고려.

< 우피족 월평균 지출 추이 (명목기준) >

(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소비지출	228	279	256	240	261	293	307	266	249
식료품	37	43	39	38	42	46	46	41	37
주류담배	3	3	4	3	3	3	2	2	2
의류신발	14	23	19	15	16	21	22	19	17
주거	23	33	31	25	35	31	38	28	31
가정용품	12	15	15	10	11	17	19	11	15
보건	22	27	26	22	33	25	29	27	27
교통	33	39	31	37	30	45	36	35	30
통신	12	12	12	13	13	14	13	13	11
오락문화	14	14	13	14	17	23	24	24	18
교육	9	5	5	7	9	8	6	7	6
음식숙박	29	32	38	32	33	35	29	31	30
기타	19	32	23	23	19	25	42	28	26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추산.